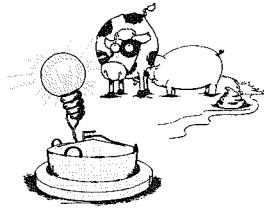




7

기술 사회에 대한 다양한 도전



기술의 민주화는 현대 기술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중 하나일 뿐이다. 엘릴이나 하이데거처럼 기술 사회가 인간의 인간됨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다고까지 여기지 않더라도 현재의 기술 발전의 양상과 속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되어야 하고 개인들은 그 급속한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을 통해 좀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 사회에 대처하는 여러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앞에서 소개한 기술의 민주화 이론이나

아래에 소개할 아미시 공동체의 노력은 기술 발전의 방향을 누가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술의 문제에 대한 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잡든지, 기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즉 기술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술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려 한다. 현대 기술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극단적인 방법부터, 현실적으로 기술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살펴 보도록 하자.

옛날로 돌아가자고? 아미시 공동체의 기술 사용

엘릴, 하이데거, 포스트먼 등 현대 기술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늘 제기되는 질문은 “기술 발전을 포기하고 산업혁명 시대 이전의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잔 말인가?”라는 것이다. 이런 물음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비난에 가깝다. 이미 우주선이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와서 전깃불도 없이 살잔 말인가?

답은 “아니요”다. 위의 세 사람 중 누구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술에 대해 비판한 사람은 없다. 물론 이들이 기술 발전의 중요

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의도는 기술 발전을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보다 인간 중심으로 제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학자들을 '기술혐오론자' 나 '과거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정작 그런 이름을 붙여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자고 크게 외치지도 않고, 기술에 대해 대단한 이론을 세상에 공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고, 기술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한다. 미국의 재세례파(再洗禮派, Anabaptists) 공동체인 아미시(Amish)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재세례파는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한 프로테스탄트 교단의 한 분파다. 아미시 공동체는 재세례파 내에서도 좀더 과격한 교단이라 하여 프로테스탄트 교단 안에서 박해를

재 세례파

종교개혁 당시에 출현한 프로테스탄트 급진파의 하나다. 재세례파라는 이름은 신앙에 대한 자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행위는 비성서적이라고 여겨 세례 지원자에게 다시 세례를 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거부하는 등 정치·종교적 급진성 때문에 가톨릭은 물론 프로테스탄트 교단에서도 배격당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재세례파 집단으로는 미국에 자리잡고 있는 메노파와 아미시 공동체 등이 있다.

받았다. 아미시 공동체는 1800년대 말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세속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하려 애써왔다. 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적 중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 노력한다.



현대 기술을 거부한 채 살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

아미시 사람들을 소재로 한 <위트니스 Witness>라는 영화가 1985년에 개봉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해리슨 포드 주연의 이 영화는 경찰의 살인 장면을 목격한 아미시 어린이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려는 형사와 이를 거부하는 아미시 공동체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공동체는 세속 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만이 심판의 권한을 가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미시 공동체는 여러 가지로 특이한 점이 많지만, 자동차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여기서는 이 공동체의 현대 기술에 대한 입장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정신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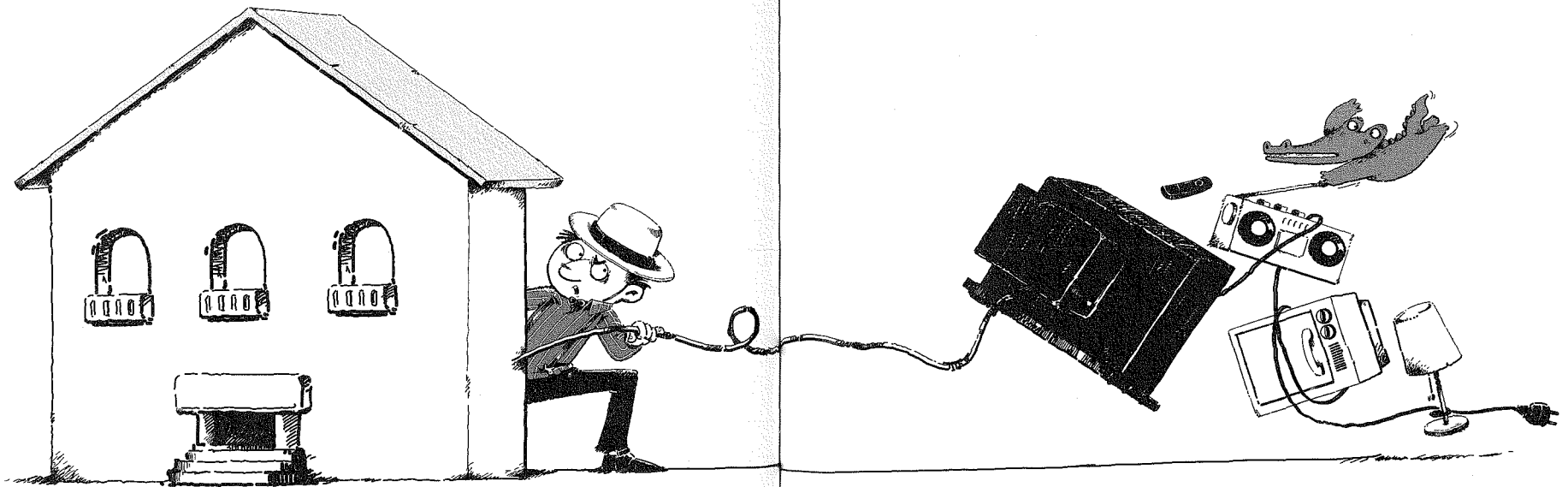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기술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선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들이 기술의 사용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용

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미시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술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 장로회의에서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다음의 세 가지가 결정의 기준이 된다.

첫째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세상과 지속적인 연관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전기를 쓸 경우 전기 공급 시스템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전자 제품들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발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배터

리와 그 배터리로 작동되는 제품들은 사용할 수 있다. 우유 회사에서 농장마다 냉장고와 우유 젖는 기계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랫동안의 협상을 통해 110볼트가 아닌 12볼트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계들을 설치하기로 한 예는 유명하다. 그러나 일요일에 우유 회사 트럭이 우유를 받으러 오는 것은 끝까지 거부했다. 일요일은 성경에 따라 안식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준은 그 기술이 불필요한 사용을 조장하는가다. 예를 들어 자가용이 있으면 불필요하게 돌아다니게 되고, 공동체와 가족에게 소홀해지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에서 금지하고 있다. 아미시 공동체의 주요 이동 수단은 마차다. 마차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이상은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그러



나 콜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사용과 소유를 분리하는 것이다.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엉뚱한 유혹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 기준은 공동체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25년 동안 전화 사용을 두고 논란을 벌인 것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급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편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전화 때문에 공동체 내부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걸려오는 전화로 가족 생활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너무 용이해져서 세속에 물들기 쉽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오랜 논란 끝에 내린 결론은 전화를 사용하되, 전화를 집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아미시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별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몇 집이 공동으로 전화를 소유하고 위급한 상황이나 사업 관계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집 밖의 헛간에 개인이 소유한 전화를 설치하기도 한다.

아미시 공동체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것은 기술 사용이 비성경적이라거나 이단적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고 세속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교회가 전기 사용을 제한했을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교회가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한 구성원은 말했다. “전기는 세속화로 이어질 거예요. 전기를 쓰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온갖 필요 없는 것들을 쓰게 되지요. 디젤 엔진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물건들에 대한) 통제권이 더 많아져요. 만약 전기선을 연결하면, 아마 모든 전기 제품을 다 쓰고 싶어하게 될 거예요. 아미시도 사람이ら구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전기가 아니라 전기와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지요. 온갖 편리한 제품들, 텔레비전, 컴퓨터 등등 말이예요. 우리가 전깃불을 설치하면, 그 다음엔 어디서 멈추지요? 그때부터 변화의 바퀴가 마구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도널드 크레이빌(Donald Kraybill),
『아미시 문화의 수수께끼 The Riddle of Amish Culture』(2001)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술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언젠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용 자체를 자제한다. 따라서 이들의 규칙들은 일정한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때로는 전화의 경우처럼 타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화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사용과 소유의 분리는 기술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되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시다.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아미시 공동체는 그 극단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기술 시대인 21세기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실제로 높은 출산율과 낮은 이탈률 때문에 아미시 공동체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미시의 현대 기술에 대한 입장은 엘릴이나 앞으로 다룰 슈마허 같은 학자의 생각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아미시의 생활 방식을 일반화할 경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이 고립된 삶을 고수하기는 하지만, 결국 주변의 세상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미시 사람들 자체도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슈마허

에른스트 슈마허 (Ernst Schumacher, 1911~1977)는 기술 사회

에 대한 과격한 대안으로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큰 영향을 미친 비주류 경제학자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들을 모아 1973년에 출판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에서 소규모 공동체와 이른바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주장했다.

슈마허에 따르면 거대 기술에 기반을 둔 현대의 경제체제는 한정되어

있는 자연 자원을 마치 무한한 것처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체제는 당장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하고 중국에서 만들어 유럽에서 파는 중저가 의류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는 똑같은 옷을 유럽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유럽을 거쳐 옷을 만들어 팔기 위해 수많은 물자를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을 생각하면, 당연히 현지에서 만들어 입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 에너지들이 석유나 우라늄같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정도의 공해를 일으키는 자원을 통해 생산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현재의 시스템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대량생산으로 엄청난 물자를 생산하면서도 분배는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현재의 경제체제는 세계의 일부 국가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선진국이 돈을 벌어서 제3국에 원조를 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제3세계가 자기 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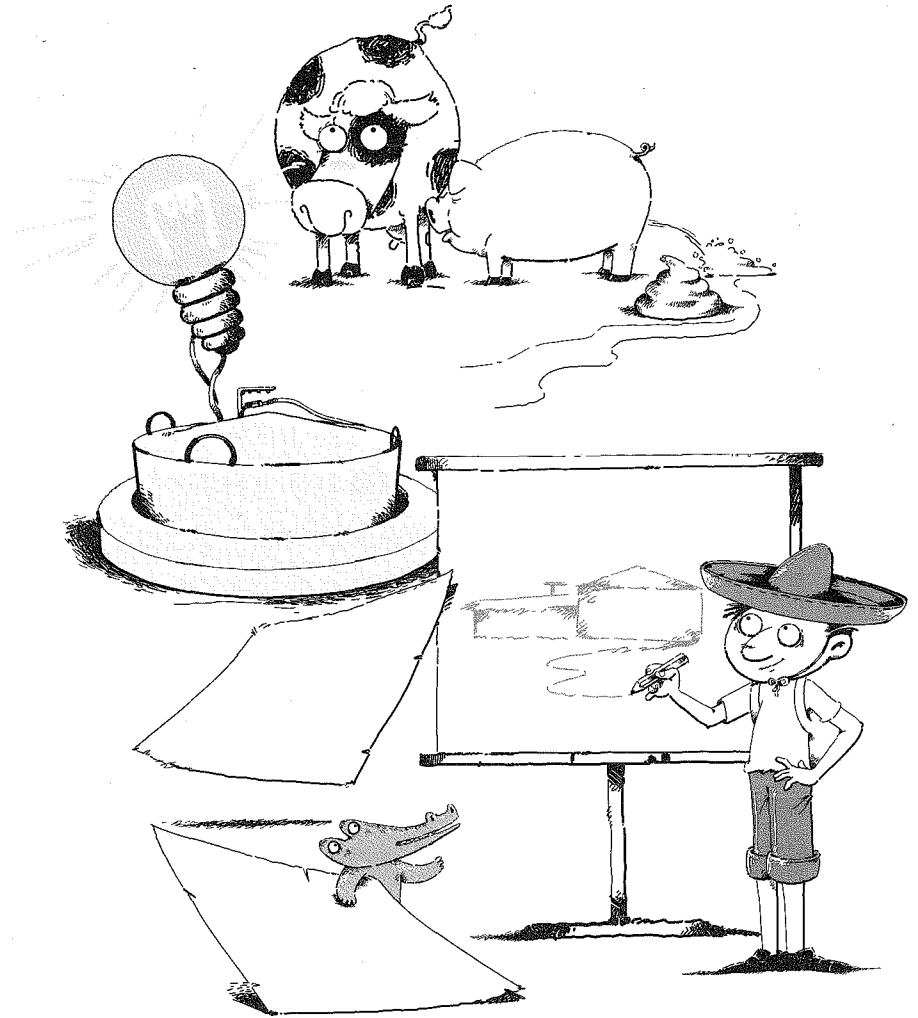
슈마허의 대안은 대량생산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생산이다. 대량생산은 기술을 이용해 소수의 사람이 많은 물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만약 모두가 필요한 물건을 그 지역의 재료를 이용해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슈마허

독일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 통계학과 경제학 연구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경제 사상을 확립,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상가다. 특히 1970년대에 그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주로 서양의 경제평창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적 규모의 경제로 되돌아올 것을 주창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러먼트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가 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권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방식의 생산은 소규모일 수밖에 없고, 보다 노동 집약적일 수밖에 없으며,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간단한 기술을 슈마히는 '중간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중간기술은 서구의 대량 생산 기술과 제3세계의 토착 기술의 중간 정도 되는 기술로, 지역의 문화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것들보다는 생산력이 높다. 슈마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제3세계 국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슈마히는 세계를 좀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중간기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자. 중간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규모 바이오가스(biogas) 발전소를 들 수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나 사람과 가축의 분뇨(바이오매스(biomass)라고도 부른다) 등 유기물을 쌓아두면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말한다. 1950년대부터 농촌이나 제3세계에 보급할 소규모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디자인들이 계속 나왔고, 인도의 농촌에서는 실제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집집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기도 했다. 이 발전 방법은 에너지원이 되는 유기물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의 수, 필요한 에너지와 수집 가능한 유기물 쓰레기의 양,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설치·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이고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굳이 핵발전소처럼 중앙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설치·유지할 수 있다면 핵발전소 등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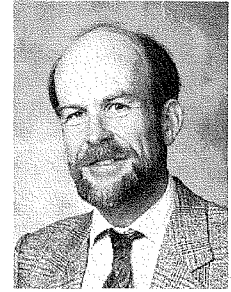
될 것이다. 물론 이때 공급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슈마허의 이론을 당장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제3세계였기 때문에 그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의 기술과 경제에 대해 자문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에너지를 많이 얻을 방법에만 부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률은 별로 높지 않다. 물론 생명공학과 화학 등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더 큰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진국의 이런 노력은 중간기술로 보기 어렵다.

‘중간기술’이란 용어는 나중에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으로 더 널리 알려진다. 특히 미국에서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적정기술은 후진국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데, 후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이 낮은 수준의 기술을 공급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거나 쓰면서 대충 살아라’고 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적정기술을 환경오염은 없고 돈은 적게 들면서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는 기술이라고 보는 낭만적인 시각이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더욱 널리 사용된다. 이는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술의 생태학 밴더버그

캐나다의 과학기술학 교수인 윌렘 밴더버그(Willem H. Vanderburg)는 10대에 시력을 잃은 뒤에도(사진에는 눈을 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한다) 공학박사까지 취득한 의지의 인물이다. 그는 공학을 공부하면서 공학 발전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한다. 이후 엘월의 『기술 사회』를 읽고 엘월 밑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간다. 거기서 엘월과 인간적으로 깊은 유대를 쌓았고, 엘월이 죽을 때까지 스승과 제자로써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후로도 엘월의 사상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역시 엘월의 현대 기술 사회 비판을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엘월의 제자로 그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는 윌렘 밴더버그

밴더버그는 기술의 경제학(economy of technology)과 기술의 생태학(ecology of technology)을 구분한다. 기술의 경제학은 인간의 삶과 사회, 생물권(biosphere, 지구상의 생물 전체)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생산성,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기술을 평가한다. 이런 흐름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사회에 속하며 사회는 다시 생물권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기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빅토리아 칼리지에서 기계산업공학과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기술의 미로 속에서 살기 Living in the Labyrinth of Technology』(2005)가 있다.

술의 발전은 본래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생활권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다. 기술의 경제학에서는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할 때 처음 목표한 단기간의 경제적 가치가 확보되지만 하면 그 기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취한다. 전기가 필요하면 일단 발전소를 짓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성과가치(performance)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간적·사회적 가치들(human social values)은 무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 생산을 위한 최선의 생산 공정을 설계하려 할 때, 자본과 자재, 인력과 시간 및 에너지의 투입에 대비되는 생산물의 양이나 질은 고려하지만, 그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피로나 일할 의욕, 그들의 사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의 관계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밴더버그는 기술의 경제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면 당장은 발전의 속도가 느려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기술, 쾌적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생활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적·사회적 가치까지를 모두 고려한 예방적 접근(preventive approach)을 시도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기술의 경제학과 대비시켜 기술의 생태학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더

이상 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방적 접근의 원리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등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다. 수많은 인간적·사회적 가치들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상충하는 가치들을 비교·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학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위에서 살펴본 현대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들은 아직까지 기술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씨 공동체의 폐쇄적인 태도는 그들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적정기술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같은 개념, 예방적 접근과 같은 시도들에는 아직 해결돼야 할 불명확성들이 존재한다. 그에 비해 기술 발달과 기술 사용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윤리에 대한 관심과 그 당위성에 대한 합의는 비교적 견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매우 당연하다. 전문가들이 각자 독자적이고도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기술 사회의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는 앞 다투어 공학윤리, 생명윤리,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에서 생명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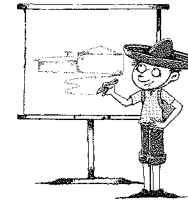
리와 의로운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공학윤리 교육도 차차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낮은 감이 있으나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도 엘렐과 토플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던 기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과학과 기술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반드시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전문가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기 지식의 사용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자핵 공학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모던 타임스>의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자. 기계에 끼어 있기는 전문가나 보통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전문가는 저 안쪽의 중요한 기어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8

생각해보는 것이 힘이다



반성할 수 있는 능력

다음은 19세기 영국의 시인 코번트리 팻모어(Conventry Patmore, 1823~1896)의 짧은 시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

The Kiss

'I saw you take his kiss!' 'Tis true.'
'O, modesty!' 'Twas strictly kept:
'He thought me asleep; at least, I knew
He thought I thought he thought I slept.'

『집 안의 천사 The Angel in the House』(1854)